

2004년도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현장교육 최종보고서

농사체험을 통한 친환경 생태체험

- 대전 YMCA 연간 활동보고서 -



꿈꾸는 젊은이 · 함께 가꾸는 지역사회 · 평화로운 지구촌

대전YMCA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Kyobo Foundation
for Education & Culture

『 2004년도 농사체험을 통한 친환경 생태체험 』

- 대전 YMCA 연간 활동보고서 -

활동명	농사체험을 통한 친환경 생태체험 [부제 : 청소년 농가체험단]				
활동일시	2004. 3 ~ 2004. 12	교육장소	녹색체험 농가마을	교육인원	총 270명
활동목적	<p>도시 속 청소년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친환경 농사체험 및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 개발, 친환경적 마인드를 형성해 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순환적 삶의 관계를 이해 해 본다.</p> <p>또한 친환경 농사체험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자연환경을 상상해 봄으로써 자연생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개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동체성 회복의 중요성을 안다.</p>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체험마을 통한 농촌마을 이해(마을 사람들 및 연간농사활동 알기) ○ 친환경 유기농 농법알기 및 자연환경과의 순환 관계 이해 ○ 계절변화에 따른 농작물 알기 및 자연생태계 체험활동 ○ 친환경 과수농사 체험 및 건강한 시골 먹거리 체험 ○ 마을 문화재탐방 및 유래 알기 ○ 바쁜 농촌 일손 돕기 및 독거노인 돕기 ○ 도시에서 개인화 되어가는 놀이보다 자연속에서 함께 놀고 어울림 				
활동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매월 1회씩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농사체험을 통한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도시 청소년의 생태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생명의식과 그 소중함을 새롭게 체험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 청소년이 현장에서 직접 친환경 농사 체험을 해봄으로써 우리 먹거리에 대한 생산 경험과 그로 인한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경험하였다. ○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순환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뛰어 놀고 땀 흘려봄으로써 어울림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만 자란 도시 청소년들에게 직접 농가의 독거노인들과 어르신들께 봉사하고 바쁜 농가 일감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봉사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 보는 계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경험해 보았다. ○ 이번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이 청소년 전국자원봉사 수기응모하여 최우수상까지 받아 더욱 보람있는 활동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참조) 				

농사체험을 통한 친환경 생태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이 키우고 우리 조상들의 친환경 농경생활을 직접 배우고 체험해 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순환적 삶을 이해하는 배우는 산교육의 현장, 바로 그것입니다.

농사체험을 통한 친환경 생태체험

1. 사업목적

도시 속 청소년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친환경 농사체험 및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 개발, 친환경적 마인드를 형성해 봄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순환적 삶의 관계를 이해해 본다. 또한 친환경 농사체험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자연 환경을 상상해 봄으로써 자연생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개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명 존중사상과 공동체성 회복의 중요성을 안다.

2. 사업개요

- 1) 주 최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2) 주 관 : 대전 YMCA
- 3) 일 정 : 2004년 3월 ~ 2004년 12월 [매월 1회 실시]
- 4) 대 상 : 친환경농사체험에 관심 있는 청소년(고등학생) 40명
- 5) 장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찬샘마을 (➡ 농림부 지정, 녹색체험 시범마을)

* **녹색체험 시범마을 소개** : 300-360 대전 동구 직동 683번지 (46가구 / 120명)

찬샘마을 회장 (변대섭 이장) H.P : ██████████

=> 83-농업 경영인선정,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주요 특산물

=> 무공해 쌀, 유기농 포도, 복숭아, 매실, 산채, 토종벌꿀

기타 마을풍경 => * 별첨 : 사진CD 참조

- 6) 지 도 자 : YMCA 실무자 1명, 자원지도자 3명
- 7) 주요활동 : 친환경 농법교육 및 농사체험, 자연생태체험, 마을문화체험, 농촌봉사활동
- 8) 추진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프로그램 기획	●									
대상모집 및 홍보활동	●	●			●	●				
사전 답사 및 준비회의	●	●	●	●	●	●	●	●	●	●
자원지도자 모집·교육	●	●	●	●	●	●	●	●	●	●
농촌봉사활동 캠프 준비				●	●	●				
농사체험 및 생태체험	●	●	●	●	●	●	●	●	●	●
사업종료, 보고서 작성					● 중간					● 최종

3. 월별 사업내용

일정	월 별 활 동 명	세 부 활 동 내 용	추진율
3월	녹색체험마을 탐방	일시 : 3월 27일 (토) 오후 1시~오후 6시 인원 : 청소년 30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마을회관 및 동네 한바퀴 내용 : 04' 청소년농가체험단 연간 활동소개 마을이장님 소개, 인사 및 마을소개 녹색체험마을 동네 한바퀴	100%
4월	봄맞이 농가대청소	일시 : 4월 24일 (토) 오후 1시~오후 6시 인원 : 청소년 31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농기구 창고 내용 : 봄맞이 농가마을 농작물 저장창고 대청소 독거 어르신 집안청소 및 빨래하기	100%
5월	녹색체험마을 알기	일시 : 5월 9일 (일) 오전 9시~오후 1시 인원 : 청소년 17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이장님댁 내용 :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진행 모형도 및 지도와 함께 하는 이장님의 강의 ➔ 녹색체험 시범마을의 준비과정과 앞으로의 비전 이장님의 인생이야기 (영농후계자가 되기까지.)	70%
6월	유기농 과수체험	일시 : 6월 6일 (일) 오전 9시~오후 1시 인원 : 청소년 31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유기농 포도밭 원두막 내용 : 유기농 포도 재배법 설명 및 안내 몸으로 체험하는 농가활동; 포도밭 새순따기	100%
7월	조상의 얼을 찾아서 마을일대 문화탐방	일시 : 7월 10일 (일) 오전 9시~오후 1시 인원 : 청소년 30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주변일대 내용 : 녹색체험마을일대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서... ➔ 역사탐방코스 비룡동 돌장승→효평동 보호수→ 마을 선돌과 보호수 가 있는 이유→민평기 가옥설명→취백정→용호동 구 석기유적지	100%
8월	땀 흘려 일하자!! 농촌봉사활동캠프 * 8월·9월은 하나로 묶어 캠프로 진행	일시 : 8월 16일(월)~18일(수) 2박 3일 인원 : 청소년 42명 숙소 : 마을회관 및 농작품 저장창고 (2박 3일) 식사 : 모듬별 스스로 급식마련 내용 : 녹색체험마을 특산물(유기농 포도) 수확 ➔ 청정지역에서 비가림 무농약 재배 환경농업을 하고 타 지역보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고당도를 자랑 찬샘 유기농 포도 인증번호(제 06-00-3-08호) ➔ 자세한 활동은 * 별첨(캠프사진) 참조	100%

일정	월 별 활 동 명	세 부 활 동 내 용	추진율
10월	단풍속에 잠긴 가을농가 산행기행	일시 : 10월 23일 (토) 오후 1시~오후 6시 인원 : 청소년 27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뒷동산 노고산성 내용 : 농가뒷동산 노고산성 가을산행 및 자연놀이 ➔ 나무 이름 및 열매알기 / 나뭇잎 자연인 만들기	100%
11월	벼이삭을 찾아온 농가 겨울철새탐조	일시 : 11월 27일 (토) 오후 1시~오후 6시 인원 : 청소년 30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주변 대청호 주변 내용 : 벼이삭을 찾아 시베리아에서 매년 날아오는 농가 겨울철새 종류와 특징알기, 현장관찰 ➔ 관찰한 철새 : 쇠오리, 청둥오리, 쇠물닭, 논병아리, 흰뺨검둥오리, 비오리, 넓적부리, 중대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70%
12월	겨울농가 일손돕기 및 1년 사업평가회	일시 : 12월 18일 (토) 오후 1시~오후 6시 인원 : 청소년 35명 장소 : 녹색체험마을 농가창고 및 마을회관 내용 : 겨울농가 창고 정리 및 농기구 정리정돈 겨울연료 땀감나무모으기, 고구마구워먹기 ➔ 활동이후, 1년 활동 소감발표, 2005년도 활동안내 청소년 농가체험단 증강식 및 다과회	100%

4) 월별 활동평가

3월 활동		<p>첫 시간, 첫 만남. 처음 만난 청소년들과 이장님과 그리고 농가마을, 1년 동안 청소년농가체험단과 함께 할 직동 녹색체험 찬샘마을을 방문, 친절히 마중 나오신 이장님의 마을소개와 함께 1년 동안 함께 할 농가체험과 생태체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이어 마을 어른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이장님과 함께 마을 한바퀴를 돌며 봄맞이 농가들녘의 다양한 풀들과 야생화, 농작물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처음 만난 친구들과 주변 농가환경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맑은 공기, 따뜻한 봄햇살 덕분에 즐거운 농가탐방이 되었다.</p>
4월 활동		<p>봄맞이 농가마을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날씨가 풀려서 화창한 봄햇살과 함께 시작한 4월의 활동은 봄맞이 농작물 저장창고 대청소 및 독거 어르신 집안청소였다. 그러나 처음엔 창고의 먼지와 곰팡이 냄새, 거미줄 때문에 서로를 멈칫하며 서성이기만 했는데 이장님이 앞서 열심히 치우시니 아이들도 뒷따라 열심히 참여하였다. 농가 독거노인들의 집안일도 처음엔 부담스러워 들어가지도 못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모두가 내일처럼 열심히 땀흘려 일해 주었다. 일한뒤 꿀맛 같은 밥을 먹으며 하루 활동을 서로 평가해 보았는데 태어나서 농가방문이 처음이라는 아이도 있었고 더구나 이런 활동은 더욱 처음이라고 당황스러웠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나의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과 뿌듯함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p>

5월 활동



아침부터 비가 와서 일정을 연기하려다가 몇 명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정된 녹색체험마을을 방문했다. 마을입구까지 우산을 쓰고 마중 나오신 이장님의 환영으로 아늑한 이장님의 집안에서 3대째 이 농가에서 이장님을 지니는 뒷이야기와 인근 대청호수가 들어 오기까지의 엷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 주셨다.

특히 대전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근접해 있어 상하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친환경적인 농가생활을 생활화 했으며 유기농법을 이용한 농작물 및 과수농법을 알려주셨다. 일찍 감치 영농후계자로 농업에 뜻을 둔 이장님의 개인사를 들려주셨는데 입시위주의 교육속에 매몰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땅과 건강한 물이 있고 내 손으로 밥 지어 먹을수 있는 농촌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자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김치전을 만들어 주시며 마을에서 직접 만드는 귀한 포도주와 칙즙까지 내주셔서 농가의 따뜻한 온정까지 느껴 볼 수 있었다. 비가 와서 바깥활동은 못했으나 실내에서의 진솔한 얘기가 더 감동적이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6월 활동



파릇파릇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6월, 녹색체험마을의 유기농 포도밭을 찾아 생태기행을 출발하였다. 식수원인 대청호와 인접한 밭이라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직동 유기농 포도밭은 20년동안 무농약으로 재배된 찬샘 마을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꿀맛포도다. 일조량이 커 달고 송이가 커서 상품 가치가 높은 그 포도밭을 아이들과 함께 작은 새순 및 얇은 포도 줄기 따 주기활동을 하였다. 이런 활동이 처음이라 왜 멀췌한 포도송이줄기와 새순을 따는지 또 어떤 새순을 따야 하는지 어려웠다. 그러나 이장님의 친절함 안내로 더 굵은 포도알과 튼튼한 줄기를 얻으려면 주변 줄기를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서투른 몸짓으로 시작한 포도 새순 따기, 처음엔 요령이 없어 힘들었지만 바깥쪽으로 비틀어 따는 요령을 익히면서 모두들 활동에 속도가 붙어 꽤 많은 포도밭을 정리했다. 농사일은 때를 놓치면 망치는 법, 이날 모두 땀흘리며 늦게까지 작업을 마쳤다.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인지 작업을 마치고 이장님께서는 포도밭만큼이나 넓은 인심으로 푸짐한 포도선물도 받았다. 힘든 만큼 보람 있는 하루였다.

7월 활동



녹색체험마을 주변일대는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환경교육이 시작한 친환경적 삶을 살았던 옛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는 일부터 시작되는데 전통문화와 생태환경을 하나의 맥으로 마을 주변일대를 탐사 해 보기로 했다. 이 안내는 환경운동가이자 지역 문화유산해설가이신 안여종선생님의 안내로 진행되었으며 맨 처음 비룡동 돌장승부터 효평동 보호수, 마을 선돌과 보호수가 있는 이유, 민평 가옥설명 및 취백정 소개, 마지막으로 용호동 구석기유적지까지 평소 무심코 넘겼던 마을 주변의 문화유적을 찾으며 새삼 우리 삶속에 숨겨져 있는 조상의 열과 자연친화적 삶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8월· 9월
여름캠프



무더운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먹고 마시며 온몸으로 접하는 청소년 농촌체험봉사캠프를 실시하였다. 숙소를 마을회관과 작물저장창고로 삼고 식사는 모듈별로 식단을 정해 각자 해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박 3일의 농촌봉사활동은 시작하였다. 처음엔 숙소부터 농촌의 정겨운 향기(소풍냄새)까지 모두가 낯설고 불편해 하며 적응이 안되는 듯 하더니 곧이어 이어지는 농사체험과 생활 자립 활동을 통해 어느새 아이들도 금세 시골아이들이 되었다. 입시위주의 학업환경과 개인 PC 보급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된 요즘, 함께 땀 흘리며 남을 위해 봉사하고 모듈별로 하나가 되어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 잊혀져 가는 온정을 찾고 자연 속에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10월 활동



10월은 활동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가을산행으로 정해졌는데 마을 뒷동산에 위치 한 노고산성을 찾아갔다. 이 산성은 옛날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의 치열한 격투지로 그 옛날 골짜기마다 핏물이 넘쳤다고 해서 이 마을 옛 이름이 핏골마을이었다고 한다. 이 산성은(피골)마을의 뒷산인 표고 250m의 산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성의 주위는 300m 정도로 남북을 장축으로 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산성은 계족산성의 전초 기지로서 금강의 수로와 옥천-문의간의 도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장님의 말씀으론 산성정상에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노고)바위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 앞에서 와서 늘 가정의 평안과 한해 풍년을 기원했다고 알려주셨다. 농가를 중심으로한 산행을 통해 그 마을의 옛 문화와 역사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산행을 하며 중간 중간 멋스런 단풍의 여러 나무 이름과 열매를 알아보고, 나뭇잎을 통한 자연놀이도 함께 해 보았는데 처음엔 쑥스러워하더니 곧 친숙해져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끽하는 풍요로운 가을산행이 되었다. 앞으로 **환경교육은 곧 우리의 생활 문화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월 활동



예년에 비해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 우리나라를 찾는 시베리아철새들의 월동기가 늦어진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여지없이 먹이와 기후의 변화에 따라 철새들은 찾아왔다. 청소년들에게 철새란 거의 무감각에 가까웠다. 진행을 하고 교육을 담당하던 강사님만 흥분하며 설레이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엔 약간은 안타까울 정도. 그러나 역시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감수성은 어른보다 나은 듯, 철새들의 생태적 특징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들으며 조금씩 철새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철새는 대부분 벼이삭이나 갈대뿌리 혹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먹이와 추위를 피해 시베리아에서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새들이다. 주변에 큰 갈대호수가 있고 바로 옆엔 친환경 들판이 있기에 이 녹색체험마을은 사람뿐 아니라 철새까지도 녹색을 체험하고 살기에 좋은 마을인가 보다. 이날 설명을 들으며 관찰한 새들은 쇠오리, 청둥오리, 쇠물닭, 논병아리, 흰뺨검둥오리, 비오리, 넓적부리, 중대백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이 있었고 백로류나 왜가리는 여름철새로 알려져 있는데 이젠 텃새처럼 이곳에서 번식하며 우리와 함께 산다. 이 마을에 사람들과 철새가 많은 것은 까닭은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곧 맑은 물과 공기, 오염되지 않은 땅과 곡식, 그리고 식지 않은 온정 때문일 것이다.

12월 활동
및
연간 총평



농가체험을 통한 생태교육이란 테마를 가지고 1년을 보내며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웠던 녹색체험마을탐방 !

올해 마지막 활동을 기대하며 정든 녹색체험마을을 찾았다. 마을입구 까지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주신 이장님은 뽕자 그동안 정이 들어서인지 아이들도 달려 나와 선뜻 내년에도 꼭 찾아와서 도와 드린다면 몰래 준비한 선물까지 전해 드렸다.

1년 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모두들 아쉬워하는 표정이긴 했지만 처음 그 무표정했던 청소년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다양한 감정이 실리고 밝고 건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기뻐다. 자연과 함께 한 농사체험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껴졌다.

겨울은 농한기라 그리 할 일은 없어 농가 주변정리가 주요활동이 되었다. 농번기에 썼던 페비닐도 거두고 주변 목재들도 정리했다. 추워서 주변 나뭇가지와 버릴 목재들을 때워 불을 짚었는데 일하고 난후 그 숯에 익혀 먹는 군고구마 맛이 기가 막혔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녹색체험마을과 함께 했던 즐거웠던 일정들이 마무리 되었다. 고구마를 먹으며 이장님과 아이들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그 동안의 활동소감을 나누고 2005년의 활동과 서로의 바람을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함께 참여했던 문승배라는 친구가 전국청소년자원봉사수기에 이번 활동을 수기로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은 영광도 또 하나의 성과라 볼 수 있겠다. (* 별첨)

월 1회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 무엇보다 보람 있고 성과 있는 한해가 되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아껴주시고 알려주신 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04` 『농가체험을 통한 생태체험』 참가자 명단

별첨 2-1 04` 『농가체험을 통한 생태체험』 활동 후기 (3편)

	년	반	성명	e-mail	생년월일	주소(대전광역시)
1	2	1	안명환			
2	2	3	양성모			
3	2	3	임철순			
4	2	3	정의성			
5	2	3	정일선			
6	2	4	김진성			
7	2	4	임승진			
8	2	5	조효종			
9	2	6	김수용			
10	2	6	류성민			
11	2	6	정웅기			
12	2	8	김민호			
13	2	8	문승배			
14	2	8	박상혁			
15	2	9	강민호			
16	2	9	권창욱			
17	2	9	김재완			
18	2	10	이상훈			
19	2	11	김영필			
20	2	11	백현진			
21	2	11	이근완			
22	1	7	김응철			
23	1	7	한성민			
24	1	8	조성연			
25	1	9	강봉석			
26	1	9	김광기			
27	1	9	송정의			
28	1	9	유준혁			
29	1	11	장치용			
30	2	6	김소영			
31	2	6	배진희			
32	2	7	김동언			
33	2	9	류예지			
34	2	9	박재연			
35	2	9	이현정			
36	2	10	유소형			
37	2	11	박정임			
38	2	11	성진			
39	2	11	박세윤			
40	2	11	황유리			

여름 농촌체험봉사캠프를 마치고..

정용기 (2학년 6반)

YMCA에서 우리는 직동 찬샘 마을로 버스를 타고 농가체험을 하러 떠났다. 처음 하는 봉사활동이고 또 처음 하는 농촌 방문 이다 보니 설레기도 하고 새로움에 좀 거부감(?) 비슷한 것을 느끼기도 했다. 40분 버스를 타고 점심 경에 도착하니 이장님께서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셨다. 이장님이 옛 폐가를 체험관 비슷하게 꾸미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 풀이나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으라는 임무를 맡았다. 첫날이라 그런지 힘들진 않았지만 애들과 서먹 서먹함이 좀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 같다. 그 뒤 남자 아이들은 그 폐가 수도에서 노천 샤워를 하고 저녁을 해먹고 모기와의 동침을 시작했다.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쳐서인지 너무나도 피곤한 2번째 날이 시작 됐고 우리는 아침 식사 후 모두 포도밭으로 올라갔다. 이장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닥에 비닐을 깔아 비가 와서 땅이 비를 다 흡수해 열매가 과다하게 익어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한 조가 한 줄을 맡아서 비닐을 깔았는데 처음엔 잘 안되더니 저녁에 다시 돌아 왔을 땐 한결 일이 쉬웠다. 저녁으론 고기 파티로 포식을 하고 밤새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 놀았다. 마지막 날엔 쉬운 일 조금을 끝내고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 내가 고생한것보다 얻은게 더 많았던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부만큼이나 쉬운 것이 없구나 였고 그렇게 힘들어 농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밥이나 과일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되겠다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을 갖았다. 선생님들 너무나도 수고하신 것 같고 친구들도 많이 수고했고 나 자신 또한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봉사활동 이었다.

2004 YMCA 농촌봉사활동 핫팅 !!

김재완 (2학년 9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추억들이 많이 생겨서 좋고 또 좋은 친구들과 사귀어서도 좋았다. 난 고 3인데.... 다른 아이들보다 일도 안하고 놀기 만해서 미안하기만 하다. 2박 3일 동안 재미있었고 거기에 계시는 이장님이 존경스러웠다. 포도나 여러가지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들을 순수 재배 하시고 우리가 했던 일 포도밭에 비닐 까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어르신들께서 땀별아래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니 맘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년 가서 일을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봉사 활동 시간 때문에 참가했지만 다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어른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었다. `아무나 농사일을 하는게 아니구나!~` 같이 가신 모든 선생님들 ! 정은영 선생님들과 여섯명의 지도교사 또 밥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전하고 싶네요 ! 또 같이 간 학생들도 수고 많이 했고 답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튼 함께한 친구들 몸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라... 답에 기회가 되면 만나자꾸나.... 함께한 모두 핫팅 !!

내게 많은 것을 안겨준 고마운 체험

이현정 (2학년 9반)

큰 경험을 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로 40여분 달렸을까 어느새 조그마한 한 시골 마을에 도착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우리를 맞이한 곳은 마을의 경로당과 창고 그곳은 40명가량 되는 우리가 2박 3일간 머물, 고마운 곳 이었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서로를 몰라 서먹서먹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느꼈으나 시골의 맑은 공기가 그걸 잊게 해 주었습니다. 여자는 경로당에서 남자는 마을 공동 농기구 보관 창고에서 2박 3일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어놓고 마을을 한 바퀴 순회하고 저희는 점심을 시작했습니다. 늘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을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든다는 게 색달랐습니다. (물론 3분 요리지만-.)

다치지 않게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마을의 한 폐허를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목재 건축집에 마당에 잡초는 왜 그렇게 많은지 뽑아도 뽑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잡초들이 미워질 정도로...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일이 빨리 끝났습니다. 모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겨우겨우 잡초 제거를 다하고 다시 돌아온 우리들의 숙소 ! 맛있는 저녁과 모두의 힘을 합쳐 어떤 일을 성사해 냈다는 그 들뜬 기분이 모두를 한결 친하게 해 준거 같았습니다.

둘째날 아침, 저는 간밤에 날씨 적응을 못해 2시간가량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웃는 얼굴을 보니 그 피곤함이 날아가더군요.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우리는 포도밭에 갔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포도 농장을 갔는데 우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길이 왜 이리 가파르고 먼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왔던 것은 마을이장님이 포도 농장으로 까지 가는 길에 놓여진 돌들 하나하나와 농장 옆에 둘러싸여진 돌담들도 돌 하나 하나 다 고르고 직접 쌓으셨다는 말씀에 심히 놀라웠습니다.

정말 자신의 청춘을 다 받쳐 이 농장을 꾸리셨다는 말씀에 가슴이 조금 뭉클 해짐을 느꼈고요. 흠흠,,, 모두들 지쳐서 잠시 원두막에서 땀을 식히고 본격적으로 시작 !

저희가 할일을 포도나무가 얼마 후 올 비를 너무 많이 흡수해서 포도알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까는 것 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비닐을 깔고 피고 남자들은 삽으로 흙을 푸고 정말이지 덥고 힘이 들었지만 모두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에 다시 와서 못한 일을 마저 했습니다. 이때는 오전에 한 것보다 한결 수월하여 덜 힘이 들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특히 농장일 중간 중간에 제게 해주셨던 말씀과 힘들어도 꼭 참고 열심히 농장 일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40명가량이 힘을 합쳐 반나절 정도 만에 포도밭 하나를 완성했는데도 힘이 들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그 일을 적은 인원으로 하셨다는 생각을 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농사를 쉽게 봐 왔던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고기파티 ! 힘든 일을 하고 먹는 것인지 고기 맛이 더욱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11시 즈음 ? 공포체험을 하러갔습니다. 이장님의 트럭을 타고 가는데 으스스한 분위기 중간에 선생님들의 장난으로 언니가 우신게 마음에 걸렸지만 마지막 코스인 정자에서 모두와 무서운 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와 보니 언니들 몇 분이 밖에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간밤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신 듯 했습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고 저희는 비닐하우스의 철근들을 날랐습니다. 매우 무겁고 더웠지만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일을 끝마쳤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모두들 피곤했는지 곤히 자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다시 와 보고 싶은 값진 추억이었습니다.

진정한 “참살이” Well-being(참살이)

남대전고등학교 2학년 문승배(男)

과학과 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환경과피의 무관심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매우 황폐한 삶을 살아간다. 평소 미래사회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우연히 학교의 HOPE AND LOVE 라는 봉사 동아리를 알게 되었는데, HOPE AND LOVE라는 동아리는 명칭 그대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2001년에 순수하게 선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내 봉사 동아리이다. 매년 테마를 달리해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올해 주 내용은 대전 YMCA와 함께 친환경 농사체험과 생태교육이란 주제를 가지고 색다른 봉사체험을 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고 행동이 먼저 앞서가기만 한다.

4월 4일 대전시 동구 직동에 위치한 ‘찬샘마을’로의 첫 봉사활동은 봄 향기의 설레임으로 시작되었다. ‘찬샘마을’의 원래 명칭은 피골이었다는데 전쟁으로 온통 골짜기마다 피로 물들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그런데 마을의 이름이 너무 전투적이라 하여 ‘친환경, 유기농 마을’로 농림부의 지정을 받으면서 샘이 차고 깨끗한 마을이란 뜻의 ‘찬샘마을’로 개명했다고 한다.

버스에서 내리자 반갑게 맞아주신 이장님께 깎듯이 인사를 드리고 학교생활과 사적인 질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정답게 길을 걸었다. 걸을 때마다 들풀의 향기가 콧속을 자극해 왔다. 풀, 나물 등 새싹들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반겨 주는 것 같다. 농약을 심하게 사용한 농촌의 땅이 황폐화 되어있고, 인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반면에 이 곳 ‘찬샘마을’의 땅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천연의 모습이다. 마을 이장님께서 풀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아는 풀이 별로 없어 같이 간 동아리 친구들 모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이장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새롭게 배워나가는 느낌이었다. 활동 장소인 폐가에 도착하자 이장님께서 이 폐가를 주 5일근무제로 여가 시간이 늘어난 도시인들에게 옛 농촌의 고향집 같은 느낌으로 집을 제공하여 며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셨다. 더불어 값싼 해외의 농산물에 대응하여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농사를 지을 것이고, 청소년들과 많은 도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고 하셨다.

온갖 무장을 하고 우리들은 일을 시작했다. 이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도시인들이 버리고 간 오염된 쓰레기들에 화가 났다. 그리고 나 자신도 과거를 생각하며 무척 부끄러웠고 새로운 각오를 했다. 우리들은 서로 무거우면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분리수거를 하며 현대인들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선생님, 학생 서로 신기한 것들을 보면 내 말이 옳다고 하며 말다툼을 한다. 하지만 이장님이 정리해주시는 말씀 한마디에 모두 웃으면서 평소에 말이 없던 선, 후배 간에도 서로 말을 건네고, 물을 나누어 마시며, 사진도 찍고 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갔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 힘든 모습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당의 낙엽, 쓰레기 등을 쓸어낸다. 무척이나 보기 좋은 광경이었다. 일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장님의 식사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에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이장님 댁으로 향하는데 발걸음이 더욱 가볍다. 이 폐가가 앞으로 도시인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터가 된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부침개를 만들고 계시던 마을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미소에 인사를 드리고, 정성들여 차려주신 농촌의 소박한 음식들을 먹으니 어느 박사님이 연구한 농촌의 거친 음식이 인간의 몸

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더 먹으라고 마구 밥을 퍼주는 아주머니의 정을 느끼며 힘들었다는 느낌이 모두 사라졌다. 도시에서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해서인지 농촌 어르신들의 배려가 낯설지만 너무 감사했다.

첫번째 활동을 마치며 주위의 경치를 둘러보고 하루를 되새겨 보니 평소에 학교에서 볼 수 있었던 선생님, 친구, 후배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고, 마을 일손을 더 도와드리지 못한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

첫번째 마을 방문이후의 활동은 주로 유기농 농법을 공부하고, 실습하며 환경과 농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첫번째 활동때 보다는 인원도 부족 늘었고, 다들 어느때 보다 즐거워 보였다.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온 유기농 포도의 특징은 농약을 쓰지 않고 많은 미생물로 만든 액체 비료를 사용하여 만든다. 포도가 탐스럽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곁가지를 자르면서 보니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벌레가 많이 보였다. 벌레와 포도송이를 보며 나중에 포도가 익으면 어떤 맛일지 참 궁금했다. 가지를 잘라내는데 잘 떨어지지 않아 인상을 찌푸리면 전문가인 이장님께서 솜씨를 발휘하시며 쉽게 잘라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 엉뚱한 가지를 잘라내는 바람에 혼도 나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세상의 어느일보다 과학적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장님은 우리학교 선배님이신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농사일이 좋으셔서 학업을 중단하고 농부가 되었다고 했다. 농사에 뜻을 품고, 어려운 일을 개척하시는 이장님의 모습에 젊은 사람은 모두 떠나가고 노인만 남았다는 농촌의 현실이 그리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이장님을 보고 무척이나 부러웠다. 값싼 농산물이 해외에서 마구 들어와 많은 농부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이 더욱 힘을 내셔서 유기농법으로 값싼 해외 농산물과 당당하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요즘 Well-being이라 하여 몸에 이로운 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기농 농산물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유기농법은 일단 몸에 해롭지 않고 현대적인 비료 또는 해충약,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황폐화 되지 않으며 많은 미생물들을 보살필 수 있는 미래의 중요한 농사법이다.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고 했던가? 나의아버지는 도청 농산과에 근무하시면서 친환경적인 농법에 대해 연구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한 친환경 농법체험과 관심 덕분인지 이번 농촌 봉사활동이 나에게도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다.

일하는 중간에 마을 어른들과 동아리 회원 모두가 새참을 어울려 먹으면서 문득 이런 경험을 몸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참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이렇게 힘들고 정성스럽게 가꾼 포도는 9월에는 달디 단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해주었고, 농촌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번 농촌 봉사활동과 농촌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 때문에 더욱 커졌다.

올 한해 농사체험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농촌과 도시 그리고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공존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또 그러한 공존법은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에 찾아가 그곳의 먹거리와 그 곳의 삶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곧 환경이며, 공존인 셈이다. 또한 어려운 농촌을 도울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는가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정착되면 사람들에게는 많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권하고 싶다.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디로 여행을 갈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나와 더불어 남을 위한 매우 현명한 여가 활용이며, 그것이 곧

Well-being(참살이)아닐까?

3학년이 되어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환경 단체에 가입하거나 환경단체를 직접 만들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다. 말로만 하는 환경 보존 운동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봐야겠다. 그동안의 환경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가 새롭게 바뀔지도 모른다.

어쩌면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은 아닐까? 찬샘마을의 이장님처럼 말이다. 혼자 활동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이것도 어렵다면 사회의 많은 봉사활동 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깨닫고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들은 몇 개월 후면 치열한 입시경쟁에 위해 학업에 열중 할 것이다. 지금도 입시경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입시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입시 경쟁을 생각하기 보단 농촌의 현실과 환경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싶다. 몇 달간의 활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환경에 관한 많은 활동도 할 것이지만 주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교육 제도가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환경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준다면 좋겠다.

제 2004 - 000호

수료증

생년월일 : 1980.01.01

성명 : 홍길동

귀하는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대전 YMCA에서 주최한 농사체험을 통한 생태교육에 참석하여 친환경 농사체험 및 생태문화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자연환경 실천운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 18일



대전 YMCA 사무총장 이충재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Kyobo Foundation
for Education & Culture